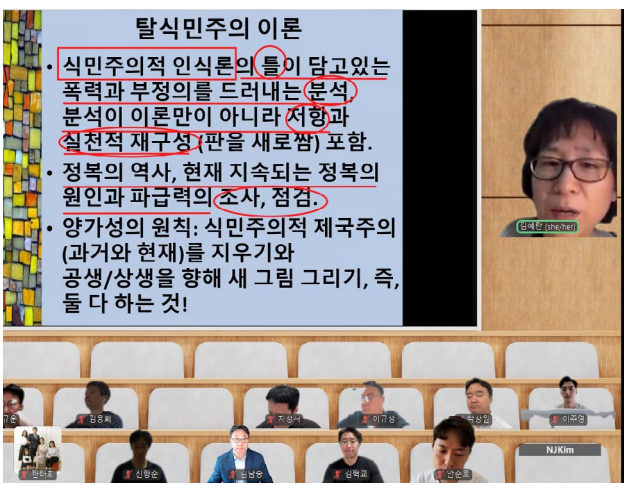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2024년 10월, 인천에서 한국 총동문회 모임 개최

한국 총동문회 모임이 2024년 10월 21일 오후 4:30 부터 인천 계산중앙교회(최신성 담임목사)에서 열린다. 지난 7월 21일 한국을 방문한 이경식 부총장은 동문회 임원단(회장: 곽주환, 부회장: 최신성, 박동식, 김두영)과 만나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코로나 기간 중 모일 수 없었던 동문회였기에 이번 만남은 더욱 더 기대가 된다. 오는 10월 18일 부터 11월 1일까지 이경식 부총장과 김남중 부학장은 한국의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 설교 및 입학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총동문회는 동문들과 재학생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이경식 부총장은 총동문회 모임에서 학교 현황 설명과 더불어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목의 autoethnographic 강연을 할 예정이다.

2024년 봄학기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집중수업 성공적으로 마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2024년 봄학기 집중수업이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수업에는 12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하여 김남중 교수의 '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지향하는 예배와 설교' 강의와 김혜란 교수의 '포스트 식민주의 실천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설교' 강의를 수강했다.

익명으로 제출한 강의평가 결과, 현장 목회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이론과 실천을 접목한 퀄리티 높은 강의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지향하는 정의, 연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모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소통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다만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아 2025년 1월에 진행될 겨울학기 집중수업은 한국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많은 클레어몬트 동문들의 후원이 있었다. 그리고 특별 강사로 참여한 이천진 목사(한양대학교 대학교회 담임목사), 천진석 목사(제자회 살림교회 공동목사), 한영은 박사(UMC 예배 예술 전문가), 김승남 목사(PCUSA 예배 음악가), 그리고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가 예배와 설교 수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격을 높였다. 학교의 지속적인 복지 제공과 지원, 동문들의 후원, 그리고 강사, 교수, 학생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가 큰 봄학기 집중 수업이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지난 15년 동안 150명의 학생들이 입학했으며, 현재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24년 5월까지 총 91명의 졸업생들이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5년 겨울학기(1월) 수업은 한국에서 있을 예정이고, 입학지원 마감일은 올 해 9월 1일이다.

8월 개강을 맞이하며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학기부터 한인 학생회 회장으로 섬기게 된 송영한 전도사입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제게 큰 의미가 있는 학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학생회 소속으로 맞이하는 첫 학기이면서 새로운 캠퍼스에서 맞이하는 첫 가을학기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한인학생회도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캠퍼스의 출발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LA Westwood라는 지역은 LA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모이기 어렵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인 학생회가 주관했던 종강/졸업 예배는 한인 학생회의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강/졸업 예배를 통해 오랜만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선배 목사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먼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통해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부터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그 자리를 통해 더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학생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인 학생들의 연결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거리는 멀더라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 연결되는 한인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인 학생회는 Intensive week와 같이 한인 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일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 가을학기부터 한인 학생회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박성진입니다. 저는 요즘 Grant Hagiya 감독님의 UMC Polity 수업을 듣느라 분주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설렘이 가득해지는 요즘입니다. 학교 오피스도 인테리어가 끝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부터는 새로운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을 듯싶습니다. 새로운 강의실, 새로운 학생들, 방학 동안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옆에 오는 푸드트럭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Dr. Andrew Schwartz의 화이트 헤드의 저서, '과정과 실재,'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수업과 Dr. Grace Kao의 윤리학 수업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CST의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접할 수 있어서 매 학기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번 학기도 수준 높은 토론들이 펼쳐지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감교육국과 클레어몬트
15년 협력의 결실로 올해도 변함없이 목회 최고지도자 배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교육국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하 클레어몬트)은 지난 15년간 협력을 통해 목회 최고지도자 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기감 본부회의실에서 목회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식 및 상장 수여식, 감사 예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교육행정부장 윤석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 예배에서는 2023년 목회학 박사 과정 졸업생이자 작년 교육국총무상 수상자인 김진명 목사가 기도를 맡았다. 이어 김두범 교육국 총무 목사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는 주제로 설교하였고, 수료증과 상장 수여 이후 김 총무의 격려사와 함께 축도로 진행되었다.

2006년 당시 기감 교육국 김두범 총무는 클레어몬트와 협력하여 한국어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개설을 요청했다. 이후 2009년 6월,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목회 최고지도자 과정을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졸업생의 첫 번째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15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 수많은 기감 목회자들이 박사 학위와 함께 목회 최고지도자 수료증을 취득했다. 그들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수료식에는 2023년 졸업생 4명(김충진, 김진명, 김용호, 고문영 목사)과 2024년 졸업생 4명(이종철, 황신, 가희제, 박윤준 목사)이 참석했다. 또한, 황신 목사(2024년 감독회장상), 가희제 목사, 박윤준 목사(2024년 교육국총무상) 등이 각종 상장을 받았다. 작년에는 김충진 목사가 감독회장상을 김진명 목사가 교육국총무상을 수상했다.

기감 교육국과 클레어몬트는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회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클레어몬트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 기관은 강화된 리더십 역량을 갖춘 목회자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관련기사: 감리교회의 미래를 돕기 위한 14년의 협력
https://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6

칼펙 연회(Cal-Pac) 한인 목회자 동향

연합감리교 칼펙 연회(Cal-Pac)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로스앤젤레스 매리엇버뱅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연회에서는 김용식 목사, 정대선 목사, 정지한 목사의 추모식을 거행하며 그들의 헌신과 기여를 기렸다. 또한, 구진모 목사와 예선범 목사의 은퇴를 축하하며 그들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홍연 목사와 전재홍 목사는 정회원으로 안수를 받으며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맞이했다. 김동형 목사와 김택규 목사는 현재 병환 중에 있어 쾌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칼펙 연회에서 여러 목회자의 파송이 변경되었다. 김도민 목사는 감람연합감리교회로, 박성환 목사는 윌셔연합감리교회의 영어부 담당으로 파송되었다. 이영성 목사는 윌셔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이순영 목사는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로, 정상용 목사는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로 파송되었다. Samuel Nam 목사는 Kardia UMC로, 배동희 목사는 San Luis Rey Valley UMC로, Suzana Kim 목사는 Aiea UMC로, 유희정 목사는 Glendora UMC로 각각 파송되었다. Deborah Oh 목사는 Brea UMC로, 김용완 목사는 First UMC of National City로, 이상호 목사는 Van Nuys UMC and Reseda UMC로 파송되었다. 한진호 목사는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로, 정춘욱 목사는 라팔마 연합감리교회로, 정치영 목사는 남가주주님의 교회로 파송되었다.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와 응원을 부탁한다.

”장로 목사로서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Dottie 감독”

UMC 신학생 목회자 컨퍼런스: 설교자의 글쓰기

왼쪽: 김기석 목사, 오른쪽: 김영봉 목사

제2회 울림과 어울림 신학생 목회자 컨퍼런스가 〈설교자의 글쓰기〉를 주제로 7월 15일(월)부터 7월 17일(수)까지 Palos Verdes 메리 & 조셉 리트릿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창립 120주년을 기념한 LA연합감리교회가 주최하였고 웨슬리안 펠로우십 울림과 어울림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목회지에서 온 38명의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강사인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은퇴목사), 김영봉 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의 강의(울림)와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어울림)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영봉 목사가 자신의 설교 작성법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인 설교 글쓰기 방법에 대해 나누었다. 김영봉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묵상을 강조했다. 설교를 곶감에 비유하여 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꺼풀 벗겨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쓰기 방법에서는 불필요한 글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교를 작성한 후 다시 읽어나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며, 현재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는 김기석 목사가 언어란 무엇이고 목회자들이 언어를 사용하여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했다. 김기석 목사는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집단 학살하며 사람들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최종 해결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예로 들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행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좌우한다고 설명하였다. 언어로 소통하는 목회자가 어떠한 언어를 선택할지 더 숙고하며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강사들과 독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기석 목사는 '쌓을 적'자에 '두터울 후'자를 쓰는 '적후'(積厚)라는 단어를 통해 독서의 체험을 두텁게 쌓아 글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글 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쌓인 것 없이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봉 목사는 소유 지향성의 독서를 버리고 존재를 키우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며, 다양한 책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울림과 어울림이 주관하는 UMC 신학생 목회자 컨퍼런스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참석자들은 설교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사역에 힘써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35주년 선교찬양제 성황리 개최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는 5월 19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5주년 선교찬양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찬양제는 크레센타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김용근)의 장소 제공으로 이루어졌으며, 남가주 전역에서 여선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찬양제는 보첼리스티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0개의 찬양팀이 각기 다른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각 팀의 찬양은 다양한 스타일과 음색으로 채워졌으며,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수 김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선교찬양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인 만큼, 참석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리였다. 많은 이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이번 찬양제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이 앞으로의 사역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부방법 안내

* 수표: 수표는 받는 사람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로 쓰고 학교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장학금이 아닌 경우 메모란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이라고 명시해주세요.

* 온라인: 온라인 기부 링크는 http://cst.edu/give/donate/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금선택” 아래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항목이 있습니다.

(한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이외에 학교를 위한 기부를 원하시면 “기금선택”에 “Annual Fund”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계좌 이체(EFT)를 원하시거나 증권 기증을 원하시면 slee@cst.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